

# “호국영웅 황금재 상사의 나라사랑정신 기리며”

## 전북서부보훈지청, '황금재실' 명명식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우실)은 7일 오전 11시경 익산지역의 대표적인 호국영웅인 황금재 상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3층 강당을 '황금재실'로 명명하는 명명식을 익산시 보존단체장 및 회원,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국가보훈처가 국민들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지역별·학교별 명비와 호국영웅 동상건립, 공공청사 및 시설물 등에 호국영웅 명칭을 부여하고 윗터를 조성하는 '호국영웅알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각 공공기관의 회의실에 호국영웅의 명칭을 부여하는 사업은 전북서부보훈지청의 '호국영웅홀' 조성을 시작으로 육군부사관학교 '황금재실', 익산시 망성면 '강희중실'에 이어 이번 명명식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공공기관에 계속 확산하여 학생 및 시민들에게 호국영웅의 나라사랑정신과 업적을 널리 알려나갈 예정이다.

이우실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은 “오늘 호국영웅 황금재실 명명식을 통하여 6.25전쟁 당시 신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애국심 함양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황금재 상사는 익산시 용안면 출신으로 1949년 5월 4일 북한이 개성 송악산 고지를 무력으로 기습점령하자 당시 열악한 국군장비로 인해 적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우실)은 7일 오전 11시경 익산지역의 대표적인 호국영웅인 황금재 상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3층 강당을 '황금재실'로 명명하는 명명식을 열었다.

토치카를 파괴하지 못해 고지를 탈환하지 못하자 황금재 상사를 비롯한 10명의 용사가 자원하여 직접 폭탄을 들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토치카를 파괴

함으로써 개성을 지켜낼 수 있었으며 이 공훈으로 을지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익산의 자랑스런 호국영웅이다. /익산=장영민 기자



## 부안 농어촌공, 독거노인 위한 행복한 잔치상 배달

한국 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조남출)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홀로 어렵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찾아 행복한 잔치상 배달에 호응한 생일을 맞게했다.

부안지사는 7일 부안을 김모(84)씨 가정을 방문하여 '행복한 잔치상' 배달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복한 잔치상'은 농어촌이 고령화되고 독거노인이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해 독거노인의 건강증진과 고독감을 해소하려고 마련되었으며, 매주 2회 노인 맞춤형 건강 도시락 배달과 안부확인 서비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남출 지사장은 “농어촌 지역 독거노인들의 영양상태 개선과 고독감 해소를 위해 행복한 잔치상을 지역단체와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 완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이색회의 '눈길'

완주군은 완주 전문문화해설장에서 조선시대 전통 관복의상을 착용하고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완주 전문문화해설장 전통한옥(안채)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완주군에서 활동중인 문화관광해설사(9명)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조선시대 어전회의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뜻있게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문화관광해설사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해설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 마련과 더불어 완주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완주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장 이승철 특별강사를 초청해 '만경강과 완주의 관광자원'이란 주제로 교육도 병행했다.

군 관계자는 “2017년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해설사들의 반복적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부음

▲김윤규 전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지사장 별세= 별세일: 6일 밤 11시, 빈소: 목악 장례문화원 101호, 발인: 9일(목), 상주: 김영주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5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등록일자 2017.03.01		(우)6009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층 (사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병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겸 편집국장 김관준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888-8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888	진안지사 433-3084	정읍지사 538-3787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85	김제지사 547-8885	임실지사 010-9642-2725	장수지사 010-3882-8157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85	진안지사 433-3084	무주지사 010-2300-4253	
효지지사 010-8845-9885	팔복지사 253-6884	남원지사 632-3886	정읍지사 538-378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445-0157	순창지사 653-0444		
	효지지사 010-8845-9885	익산지사 858-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무주산림조합,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탁

무주군산림조합이 무주군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산림조합 김대용 조합장, 이향원 상무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으며 김대용 조합장은 “오늘의 기부가 지역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무주군산림조합은 숲과 자연을 가꾸는 최일선에서 지역에 희망을 심고 나눔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황정수 무주군수는 “좋은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덕분에 우리 무주가 좀더 따뜻해지고 군민들도 살 맛 나는 것”이라며 “더불어 함께 산다는 마음이 따뜻한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탁 받은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서전주로타리, 2017년도 1학기 대학생 장학금 수여

국제로타리 3670지구 서전주로타리클럽(회장 차은수) 우리의 미래인 우리지역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7일 정기모임 석상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대학생 6명(관명3, 클럽3)에게 각100만원씩 총6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차은수 회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장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더 큰 도전을 향해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또한 각자 자기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하고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클럽에서는 매년 우수한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상·하반기로 나눠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서전주로타리클럽은 1970년에 창립하여 장학금사업, 사랑의 집고쳐주기, 지구 보조금사업, 명절맞이 지역발전에 공헌하고 어른신 삼김잔치, 연탄봉사, 소년·소녀 가정돕기, 지역사회봉사단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김민근 기자

## 완산구, 저소득층 아동 대상 1박2일 드림 여행 추진

완산구(구청장 백순기)는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일상에 벗어난 삶에 대한 새로운 '눈'을 찾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박2일 드림(Dream) 여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드림(Dream) 여행은 먼저 분기별로 저소득층 아동 30명을 추천·선정하여 섬 트레킹을 비롯해 기차여행 등 아이들이 평소 소망하고 꿈꾸는 총 네 번의 체험여행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먼저 오는 8일에는 전주청소년문화의집(관장 정경주)과 사업추진 협약을 실시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여행은 물론 캠프파이어, 역할극 등 감동을 더하는 이벤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다불어 이번 사업은 분기별 평일에 1박 2일 과정으로 진행됨에 따라 아이들의 학교에 미리 통지해 현장학습 수업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대상아동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완산드림스타트센터 등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용하는 기관추천으로 분기별 30명씩 총 120명을 선정한다. /김민근 기자

## 김제 진봉면, 새만금 바닷길 꽃길 조성

김제 진봉면(면장 이승엽)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공숙)는 7일 위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 바닷길 꽃길을 조성하는 기반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직접 위원들이 면사무소 뒤 제방에서 석치마을까지 약 2km 구간에 유채씨를 뿌리고 갈퀴로 씨를 고르는 작업을 했다.

이어 3월 중순에는 제초제를 살포하여 유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제초 작업을 할 계획이다.

그동안 진봉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서울 구로구 고척1동과 자매결연을 통한 도농교류, 새만금 바닷길 꽃길조성, 망해사 환경정화활동, 사랑에 감장 담그기 등 지역사회를 강화하기 위한 열성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회원들은 김제지평선축제,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축제, 김제시 평생학습 한마당, 진봉면 경로위안 효잔치 등 다양한 행사 및 장기자랑에 참여해 하모니카, 노래, 스포츠댄스 실력을 마음껏 뽐내왔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산경찰, 북한이탈주민 새출발 응원

전주 완산경찰서(서장 강황수)는 전북하나센터를 깜짝 방문해 북한이탈주민을 환영했다.

이번 행사는 하나원에서 완산구 관내로 새로 전입 온 북한이탈주민의 2주간의 지역적응교육 수료식에 전주완산서 보안계 신변보호관이 축하케익 등을 준비해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고 현재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면담을 통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됐다.

강황수 완산서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민원 해소 및 다방면에서 취업·법률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호성파출소, 3대반칙 근절 위한 이색 카드섹션 캠페인

호성파출소는 7일 만수초등학교 정문에서 생활, 교통, 사이버반칙 등 3대 반칙 근절 카드섹션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학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생계를 위협하는 인터넷먹튀, 보이콧피싱과 같은 사이버 반칙행위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반칙,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보복, 난폭운전과 같은 교통반칙행위 근절에 대하여 동참 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민근 기자

## 김제경찰,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순회 교통캠페인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는 7일 오전 8시 김제소재 검산초등학교 앞에서 유관기관, 협력 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학철,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일 중앙초등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것으로 개학철을 맞아 '스쿨존 내 법규 질서 확립'을 위한 순회 캠페인이다.

이날 황대규 김제경찰서장을 비롯해 김제경찰서, 김제시청 관계자, 검산초등학교 교장 등 교직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등교하는 새내기 학생들에게는 '교통안전 홍보용품 연필 및 자'를 배부하며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등을 홍보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고창경찰, 고창고에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고창경찰서는 7일 고창고등학교에서 학교장 및 교사 학생, 학교전담경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신학기 힘찬 출발을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은 봄을 시샘하는 강한 찬바람과 함께 눈이 내리면서 꽃샘추위가 절정인 아침이었지만 '학교폭력 없는 고창'을 만들기 위한 열정에 꽃샘추위도 녹아내렸고 학생·교사·학교전담경찰관이 하나가 되어 등굣길 학교폭력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여성청소년계는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전담경찰관 전단지지를 나눠 주고 학교폭력예방 홍보 물품인 형광펜 및 '정'이 담긴 초코파이를 나눠주며, "학교폭력 STOP! 친구사랑 START!"라는 슬로건을 외치면서 학교폭력 근절 의지를 다졌다.

고창경찰은 4월까지 학교폭력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41개 모든 학교에서 캠페인을 실시해 청소년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학교 만들 등굣길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